

완산여고 공모교장 재임용 추진 갈등 심화

완산여고 정규교사들, 관선이사회 교장 재임용 절차 즉시 중지 요청 · 공모교장 성과 평가 신뢰성 문제 등 제기

완산여고가 공모교장 재임용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완산학원 정상화를 위해 2019년 9월 파견된 관선이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모교장에 대한 재임용 추진으로 정규 교사들과의 갈등이 심화됐다. 이에 완산여고 정규교사들은 25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관선이사회의 교장 재임용 절차를 즉시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날 3년 임기의 공모교장에 대한 재임용 절차를 구성원과 협

의도 없이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교사들은 현 공모교장 재임용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임용 추진 절차를 즉시 중단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그 문제점으로 먼저, '학교장 직무 권한 행사 부적절 여부'와 관련해 특정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에 특정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재임용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이다. 또한 교장 임기가 한 학기 남아 있는 시점에서 제1기 관선이사들이 임기 만

료 전에 재임용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했다. 다음으로, 공모교장 성과 평가가 평가 당일에 배부된 '학교장 자기 평가서' 한 가지만을 근거 자료로 채택해 100점 만점에 80점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행 여부 및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도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됐기에 평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구성원들과의 협의도 없이 이사장 독단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

가위원들의 서명을 미리 받고 사후에 평가위원장과 간사 물어서 평가위원들 조차 전혀 모르는 학교 경영 실적 평가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 또 평가위원장이 재임용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최하 점수를 준 평가위원을 교장에게 공개해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다고 했다. 한편 완산여고는 현재 특성화고로서 학령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학생 유치의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이에 일반고로의 전환을 모색 중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문화원연합회는 지난 24일 본청 5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전북문화원연합회 '맞손'

도내 14개 시군 문화원 프로그램 학생 교육 활용 · 상호협력 다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과 전북문화원연합회(회장 나중우)는 지난 24일 본청 5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14개 시·군 문화원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는 서 교육감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지원 △지역 다문화 학생들의 전통교육 △학생들의 전통놀이와 지역 역사·문화 교육 △학생들의 방과후·방학 등의 시간에 문화원이 함께 할 일을 △기타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나중우 회장은 "전북교육을 살리

고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추진하는데 전북문화원과의 협력을 제안해 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도내 학생들이 전북인으로서 배우고 알아야 할 것들을 문화원이 적극 발굴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교육청 힘만으로는 교육을 살리고 지역을 살릴 수 없다. 이제 중앙정부는 물론 14개 시·군 지자체, 대학, 문화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면서 "미래교육에서는 예술적 감수성과 인문학적 소양 등 미래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이번 문화원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전북교총, 2022 교섭 · 협의 합의서 조인

교원의 업무경감 · 근무여건개선 등 18개 안건 합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5일 5층 회의실에서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중)와 '2022 교섭 · 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조인식에는 서거석 교육감과 이기중 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섭 · 협의는 2022년 3월 10일 전북교육청이 접수, 예비 교섭 · 협의와 실무 교섭 · 협의를 거쳐 본문 8개 조 17개항 부칙 1개항 등 총 18개 안건에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단절유치원 및

개교 학교에 경력교사 배치 노력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 노력 △교무행정 업무 지원인력 배치 노력 △교원 의무수 안내 등 교원 업무경감 △청렴도 평가제도 개선 노력 △보조교사·영양·특수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노력 △사립학교 교원의 처우 개선 및 사립학교 시설 개·보수에 공립과 동등한 기준 지원 등이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교섭 · 협의 합의서를 바탕으로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25일 5층 회의실에서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와 2022 교섭 · 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업무협약

학술 관련 연구 자료 및 데이터 교환 · 공동연구 활동 상호 지원 · 학술 관련 연구 사업에 대한 상호 협조 · 지원 등 분야 협력 다짐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는 지난 24일 한지산업관 201호에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원장 이진한)과 학술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양 기관은 학술 관련 연구 자료 및 데이터 교환, 공동연구 활동 상호 지원, 학술 관련 연구 사업에 대한 상호 협조 및 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한국학 고전 연구에 특화된 연구소로서 협동번역사업, 인공지능 한문 번역 및 해석 사업 인문학플러스사업(HK+) 등을 통해 국내 한국학 중심 연구소로 발돋움하고 있다. 또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은 1957년 한국 최초의 대학 부설 연구소로 설립돼 아시아 지역 국가의 사회·문화·역사·정치·경제에 관한 종합적 연구를 선도해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향후 양 기관은 새로운 동북아 지역 연구를 개척해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는 지난 24일 한지산업관 201호에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과 학술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변주승 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학은 물론이고 동북아 지역 연구 분야에서도 상생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한 원장은 "두 기관이 인문학 분야에서 학술적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24일 열린 학·연·산·관 협력모델 세미나.

전주대, 학·연·산·관 협력 모델 세미나

전주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김용석 센터장)는 지난 24일 학·연·산·관 협력모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학교육혁신센터는 공학 교육의 발전 및 공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공학교육인증(ABEEK) 프로그램 운영, 창의융합공학인재양성사업 운영, 공학 교육에 대한 학술 활동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공학교육혁신센터의 공학 연구 기반의 성과와 활동들에 대해 지역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그리고 산업체와의 협력과 상생을 위한 연구 협력 및 산업화 활성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개최했다. 이에 전주대학교 공과대학 및 인문대 교수를 포함한 산학협력

단 및 창업지원단 교직원, 4차산업 및 소방·재난 관련 민간기업과 지자체 관계자 그리고 전북테크노파크 및 전북지역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열린 논의를 펼쳤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를 △국가 과학 기술의 발전 방향 △재난 안전 분야 4차산업 산학연관 연구 성과 △전북지역 융합센터 역할 소개 및 국가·전북 디지털 기술 사업화 방안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전주대 교원창업기업인 (주)아이랩의 4차 산업 관련 가상 현실 실감 기반 장치 및 센서(트레드밀 등), 첨단 드론 시스템, 스마트 안전 펜스 시스템 그리고 미세먼저 저감 장치 시스템 등 첨단 전신물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심폐소생술 · 응급처치 교육

직원 75명 대상 실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5일 2층 강당에서 직원 75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본청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심정지 및 기도폐쇄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3시간씩 2회차로 나눠 진행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응급처치 일반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이다. 특히, 심정지 환자 발생시 표준심폐

소생술, 구조호흡법,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일반이론과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했다. 한편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심장 압박을 통해 생명을 회생시킬 수 있는 응급처치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단위 학교뿐 아니라 교육행정기관의 모든 직원이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실제 상황 발생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나의 삶, 나의 이야기' 강연

전주대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완주소방서, 31일부터 진행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는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는 31일부터 완주소방서(서장 박덕규)와 공동으로 '2022 나의 삶, 나의 이야기'의 강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코로나19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우울증 등 '마음의 병'을 앓는 소방관들이 많은 지금, 치유 글쓰기를 통해 트라우마 극복 및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강연을 진행하는 박정혜(심상시치료 센터) 센터장은 "소방관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글로 적고 나누는 과

정을 통해 내면의 근원적 힘을 자각하고 온전한 마음과 정신의 치유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서정화 지역인문학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인문학 강좌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강연을 꾸준히 운영하겠다"며, 도내 기관 및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이 밖에도 지역인문학센터에서는 △전주MBC와 함께하는 라디오 인문학 △온다라 교양 플라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학교 HK+연구단 홈페이지(www.jiac.kr/hk+) 및 센터 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주대학교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063-220-3201~3, 3207)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한국전문대학입학관리자협 회장단 회의

전주비전대서 개최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상모)는 25일 AI뉴테크실에서 한국전문대학입학관리자협의회 제40차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회장단 40명, 교육부 조현미 사무관, 권은주 팀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새롭게 변화된 대입정책·입학전형, 2023학년도 신입생모집 활성화, 전문대학 수시 입학정보 박람회, 2023학년도 지역별 입학정보 박람회 활성화 방안과 현안문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김용욱 회장은 "급격한 학령인구 절벽과 입시자원의 4년제 대학 쏠림 현상으로 전문대학의 입시정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기 모인 회장단께서 전문대학 최전선에서 발로 뛰는



홍보맨으로 앞장 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협의회가 중심이 돼 전문대학 입시 관련 부서와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상모 총장은 환영사에서 "다양한 입시정책 관련 토론회를 거쳐 전문대학 입학관리자협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전주비전대학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